

밀라노 올림픽 카운트다운…피겨 차준환 등 최종 리허설

4대륙선수권 출전…차준환, 프로그램 완성도·예술연기 점검

신지아·이해인, 성적보다는 프로그램 컨디션 점검에 초점 맞춰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서울시청), 신지아(세화여고)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리허설 무대에 섰다.

피겨 대표팀은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올림픽 프로그램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남자 싱글엔 차준환, 김현겸(고려대), 이재근(수리고), 여자 싱글엔 신지아, 이해인(고려대), 윤아선(수리고), 아이스댄스엔 임해나·권예(경기일반) 조가 출전한다.

이재근과 윤아선을 제외하면 모두 다음달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이들은 20일 베이징으로 떠나 대회에 참가한 뒤 26일 귀국하고, 이후 이탈리아로 출국해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동계 올림픽에 나선다.

선수들은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성적보다는 프로그램과 컨디션 점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은 올림픽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한다.

그는 최근 올림픽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으로 2025-2026시즌에 펼쳤던 몰랑루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대신 2024-2025시즌 프로그램엔 광인을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를 쓰기로 했다.

차준환은 2024-2025시즌 4대륙선수권대회 준우승, 세계선수권대회 7위,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우승 등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2025-2026시즌엔 스케이팅 장비 문제

와 발목 부상 여파로 고생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을 마지막 올림픽 무대라는 각오로 준비하는 차준환은 최고의 연기를 선사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그리고 최근 ‘광인을 위한 발라드’가 자신의 연기 인생을 보여주기에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다.

이 프로그램을 부른 전설적인 가수, 밀바가 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 미쳤다.

차준환은 완벽한 연기력을 위해 고난도 쿼드러플(4회전) 점프 수도 줄일 계획이다.

성적을 위해 무리한 연기에 도전하기보다는 예술적인 연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생각이다.

신지아와 이해인은 이번 대회에서 첫 올림픽 출전의 부담감과 긴장감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올 시즌 시니어에 데뷔한 신지아는 체형 변화 문제로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노메달 부진에 시달렸으나 시즌 막판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전체 1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두 선수는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본 올림픽 무대에 참가하겠다는 각오다.

한국 선수들은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차준환은 2022년 금메달, 2024년 동메달, 2025년 은메달을 땀고, 이해인은 2022년 은메달, 2023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둔 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내빙상장에서 피겨 스케이팅 신지아(왼쪽)와 차준환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 금메달을 획득했다.

4대륙선수권대회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유럽을 제외한 4개 대륙 선수가 경

쟁하는 메이저 대회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만큼 외국 주요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대회엔 북한 남자 싱글 한광범, 페어 럼대옥·한금철 조가 출전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페퍼스, 현대건설 잡고 올스타전 ‘꿀 휴식’ 맞는다

오늘 수원서 4라운드 최종전

리시브 안정·승부처 운영 관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올스타전을 앞두고 마지막 일정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페퍼스는 21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최종전에서 현대건설과 맞붙는다.

직전 한국도로공사전에서 패배했지만 코트 위에서 확인한 가능성만은 분명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경기력을 승점으로 바꾸는 일이다.

페퍼스는 지난 도로공사전에서 시마무라-하혜진의 속공으로 공격 템포를 살리고, 박정아의 블로킹까지 더해 선수를 상대로도 통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었다.

조이가 양 팀 최다 35점으로 해결사 역할을 이어간 가운데, 박은서(8점)·박정아(7점)·시마무라(7점)·이원정(7점)·하혜진(6점) 등 국내 선수들도 고르게 득점에 가세하며 ‘조이 원맨팀’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눈에 띄었다.

장소연 감독이 언급한 ‘한 곳 차이’는 결국 승부처 운영이 다음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제 시선은 현대건설전으로 향한다. 현대건설전은 올 시즌 흐름을 가늠할 시험대다.

페퍼스는 앞선 맞대결에서 1·2라운드 연속 승리를 거뒀지만, 직전 3라운드 원정에서는 1-3으로 패했다. 당시 1세트 초반 범실로 흐름을 내준 뒤 리시브가 흔들리며 18-25까지 끌려가 주도권을 되찾지 못했다. 1세트 리시브 효율이 29.17%였던 반면, 3세트에는 12.5%까지 급락하며 공격 선택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지난날 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KOVO 제공〉

지가 급격히 좋아졌다. 현대건설은 카리와 양효진을 축으로 높이와 중앙 활용을 앞세워 페퍼스의 수비를 흔들었다.

이번 맞대결의 키워드는 분명하다. 첫째는 ‘세터 효과’다.

지난 17일 도로공사전에서 이원정은 흔들리는 리시브 속에서도 공격의 결을 바꾸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원정이 버티면 중앙을 살리는 전가가 가능해지고, 상대 블로킹 시선을 분산시켜 조이의 후위 공격이 반복적으로 차단되는 흐름도 줄일 수 있다.

둘째, 리시브다.

현대건설은 높이로 압박하는 팀인 만큼 페퍼스의 리시브가 버티는 순간 공격 템포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공격성공률도 따라 오른다.

마지막은 승부처 운영이다.

20점 이후 범실과 듀스 구간에서 한 번의 선택이 세트의 결과를 가르는 만큼 ‘한 곳’을 줄이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한 경기다.

페퍼스가 도로공사전에서 확인한 분산 공격과 끈질긴 추격을 현대건설전에서도 이어간다면, 휴식이 직전 분위기를 바꾸는 승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선수들에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겠다”

‘봅슬레이 전설’ 원윤종, 동계 종목 첫 IOC 선수위원 도전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2900여명의 참가 선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찾아간다는 각오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진정성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계 종목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한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41)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보름 남짓 앞두고 IOC 입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전했다.

원윤종은 작년 2월 27일 남자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서울시청)과 경쟁 끝에 국내 후보로 결정됐고, IOC가 발표한 11명의 최종 선수위원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으로서는 하계 종목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탁구)과 문대성 전 위원(태권도)이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지만, 동계 종목에선 쇼트트랙의 전이경과 쉼메 종목의 강광배가 IOC 선수위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원윤종은 작년 11월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가 열린 폴란드 그단스크를 찾았고 봅슬레이와 스키레톤 등 슬라이딩 종목 경기가 치러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를 방문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에 참석해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IOC 위원 및 국제경기단체(IF) 회장들과도 만났다.

그는 다음달 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 진행되는 각 나라 선수들의 투표로 IOC 선수위원이 결정되는 만큼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11명의 IOC 선수위원 후보 중 2명만 뽑히기 때문에 5.5대 1의 경쟁 판로를 뚫어야 한다.



IBSF ITP & 월드컵 찾아 우리 선수단과 함께한 원윤종 IOC 선수위원 후보(오른쪽).

〈원윤종 IOC 선수위원 후보 제공〉

원윤종은 23일 크로스컨트리스키 월드컵이 열리는 스위스로 출국한 뒤 26일 결전지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로 입성한다.

선수촌이 공식 개장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선거 운동을 펼치며, 올림픽 폐회 사흘 전인 2월 19일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선수촌이 사실상 6곳으로 분산되면서 여러 클러스터를 오가며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IOC 선수위원 후보로서 그의 강점은 유일한 슬라이딩 종목 선수이면서도 다른 종목 선수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26일 밀라노로 이동해 먼저 도착하는 선수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한다. 많은 선수와 만나다 보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요즘 전 세계 체육계의 트렌드는 선수 출신이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 변화에 발맞춰 IOC에 들어가 우리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